

# 특 허 법 원

## 제 3 부

## 판 결

사 건 2022허4628 등록취소(상)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담당변리사 원영호

피 고 주식회사 C

송달장소

대표이사 D

변 론 종 결 2023. 4. 6.

판 결 선 고 2023. 5. 11.

##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2. 7. 1. 2021당59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337462호/ 2015. 2. 5./ 2015. 11. 9.

2) 구성: **FIKA**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주방용품 소매업, 과자류 소매업, 문방구 판매대행업, 서적구매대행업, 식기 소매업, 커피 및 코코아 도매업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1. 2. 26.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제35류의 '식기 소매업, 주방용품 소매업'(이하 '쟁점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쟁점 지정서비스업 부분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1당598호로 심리한 다음, 2022. 7. 1. "원고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쟁점 지정서비스업이나 이와



동일성이 있는 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자백간주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실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1) 원고는 2014. 12. 24. 서울 E구 F(G동, H동)에 커피 및 간식과 함께 머그컵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H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에는 라는 표장이 표시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텀블러 등을 판매·전시하는 진열대에는 라는 표장이 표시된 안내문이 놓여 있다.

2) 원고는 2017. 12. 20. 서울 I구 J(K동, L백화점)에 커피 및 간식과 함께 머그컵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K동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에는 라는 표장이 표시된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H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0. 8. 4.까지 96차례에 걸쳐 머그컵과 텀블러 등을 판매하였고, 이 사건 K동 사업장에서 2019. 1. 9.부터 2020. 10. 24.까지 19차례에 걸쳐 머그컵과 텀블러 등을 판매하였다.

### 나. 판단

1)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30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자백간주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2021. 2. 26.)로부터 3년 이내 기간 동안 이 사건 H 및 K동 사업장에서 식기 또는 주방용품에 속하는<sup>1)</sup> 머그컵 등을 판매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간판과 안내문 등에 실사용서비스표로서 'FIKA', 'FIKA', 'FIKA' 등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

다. 해당 실사용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FIKA'의 색상만을 단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실사용서비스표의 사용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변형 사용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피고의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에 의하여 쟁점 지정서비스업에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쟁점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3.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1) 구 상표법 시행규칙(2015. 12.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2.가.2)차) 및 별표 1 2.서.2) 참조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